

10/2/16

설교 제목: 결혼에 대하여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고린도전서 7:1-7, 에베소서 5:22-33

- (고전 7:1)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 (고전 7:2)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 (고전 7:3)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 (고전 7:4)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절관주** 호 3:3, 마 19:9
- (고전 7:5)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절관주** 출 19:15
- (고전 7:6)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절관주** 고전 12:25, 고후 8:8
- (고전 7:7)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 (엡 5: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 (엡 5: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 (엡 5: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 (엡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 (엡 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 (엡 5: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 (엡 5: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 (엡 5:29)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 (엡 5: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 (엡 5:31)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엡 5:32)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 5: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는 9 월 둘째 주부터 계속하여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대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견(판단)을 편지로 적어 보낸 것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6 장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된 고린도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고 나머지 7-15 장은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이 보낸 편지에서 언급된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이 보낸 편지에서 언급된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 특별히 혼인에 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에 관해 지니고 있는 생각을 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Gnosticism)는 지식을 뜻하는 Gnosis 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비한 영역에 대한 지식(영지)이 있어야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사람을 영적 계급에 속한 사람, 혼적 계급에 속한 사람, 물질적인 사람, 이렇게 세 계급으로 분류하면서 이 신비한 영적인 지식은 영적인 계급에 속한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선지자나 기타 선한 히브리인들이 속한 혼적 계급 사람들은 영지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세계에는 들어 갈 수 없고 그보다 못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한 물질적인 사람들은 욕망 가운데 살고 있으므로 소망이 없고 이들의 종국은 완전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지주의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기독교와는 달리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신비한 지식인 영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에서는 영과 육을 분리시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봅니다.

그 영향으로 두 그룹,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에 육적인 것은 일체 금해야 된다는 금욕주의 그룹과 육체는 중요하지 않기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방탕한 삶을 사는 쾌락주의 그룹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두 그룹, 음행을 일삼는 쾌락주의자들과 성을 아주 금기시하는 금욕주의자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나쁜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고전 7:1)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가까이 하다는 육체적 관계를 가지다, 결혼하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좋은 제도인데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같이 말 한 까닭은 임박한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고전 7:26)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초대 교회 당시에는 교회와 크리스찬에 대해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가족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전 7:2)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전 7:8)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고전 7:9)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 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 사도는 혼인 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권면하기를 자신처럼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나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고 합니다.

이 말만 들자면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성욕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데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교제하며 여자가 남자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바로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하라고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의 아내 즉 아버지의 첩이나 계모와 관계를 맺는 자 등등 성적으로 음행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주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논지는 그냥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고전 7:17)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고전 7:18)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고전 7:19)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고전 7:20)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

(고전 7:21)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고전 7:22)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고전 7: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전 7:24)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관습과 전통들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을 거는 할례도 세상에서의 지위도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라는 말은 전부 독신으로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전 7:7)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각각의 은사가 있으므로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와는 달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결혼 제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 곧 그리스도와 성도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 제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엡 5: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엡 5: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엡 5: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은 범사에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엡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엡 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엡 5: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엡 5: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영혼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어 티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신 것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엡 5:29)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엡 5: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엡 5:31)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엡 5:32)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 5: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도 바울은 결혼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고전 6:16)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고전 6:17)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한 영이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결혼 제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가 되는 이치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그 제도를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하여 내 몸이 내 몸이 아님을 확인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훈련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 7:3)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고전 7:4)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요구하는데 아내가 거부하지 못하며 아내가 요구하는데 남편이 거부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생활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훈련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1-7 절을 보시겠습니다.

(벧전 3:1)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벧전 3:2)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벧전 3:3)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벧전 3: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벧전 3:5)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벧전 3:6)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벧전 3:7)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은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정립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세상에서 백마 탄 왕자나 만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신랑 신부 관계를 배우고 또 마지막 날 혼인 잔치에서 신랑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과, 또는 우리 아내들과 한 평생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 바에야 무엇하러 같이 사느냐고 속삭이며 이혼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되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니 남편 아내 모두 자신의 몸을 각각 주장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ی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주님 오시는 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준비하십시오.